



## 일산실업(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건설한 중수기업체

우리나라의 주정산업은 일제 식민지시대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차차원에서 무수주정을 생산하기 위한 주정제조공장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서민대중주인 소주의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정업체는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주정을 제조함으로써 WTO/ DDA 농업협상과 FTA 체결협상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고통 받는 농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산실업(주) 칠서에탄올공장은 1930년 7월 25일에 국내 제조업체의 분모자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에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1972년에 이상순 명



회장 이명환

예회장이 인수하여 원풍산업(주)부산주정공장으로 출발하였으며 2005년 12월 칠서지방산업단지로 이전완료하였고, 2006년 2월 16일에 준공식을 가졌다.

일산산업(주)은 창업 이래 단 한건의 노사분규나 노사쟁의도 없는 열린 경영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신노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 테이프 커팅

신기술을 접목한 증류 시스템 →



### 에너지 절약형 증류기 국내 최초 도입

일산산업(주)은 증류공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50%를 절감할 수 있는 절약형 증류기를 1989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여 1990년부터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1992년 11월에는 에너지 절약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이는 경영주의 과감한 도전 정신없이는 감히 시행할 수 없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결정이었으며 당사가 에너지 절약형 증류기를 도입,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주정산업은 또 한차례의 발전적 전기를 맞게 된다.

## 환경 친화적 통합폐수처리 시스템 도입

폐수처리 공정에 있어서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혐기성 폐수처리공법인  
상향식 혐기성반응조(UASB), 펜톤처리공법, 충전계를 넣은 고온혐기성 소화  
공법(THAR)과 신기술인 미세기포부상분리법(Pregenerated micro bubble  
flotation)을 국내 처음 도입하여 성공함으로써 폐수처리효율과 공장부지 이용  
률을 극대화한 성공사례를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칠서에탄  
올공장의 폐수처리 시설을 통합폐수처리공법으  
로 시공하여 油價 양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에는 정부로부터 환경친화  
형 기업으로 인정받아 자율환경관리업체로 지  
정되기도 하였다.



### 대체연료 개발 등 국책사업에 참여

통합폐수처리 시스템 (재폭기 및 침전조)

일산실업(주)은 정부의 대체 연료개발의 국책사업에도 참여하여 연료용 무  
수 알코올 제조 및 생산에 관련된 기술을 완전 국산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  
다. 특히 부산광역시에서 시내 가스홀 주형실험을 6개월간 실시하여 연료알코  
올의 실용화를 입증 실험한 바 있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로부터  
녹색도시 부산21추진 공로표창(1996년 6월)을 받았다. 현재 가스홀은 5%를  
혼합한 E5의 실증실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향후 구  
체적인 공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 일산의 미래를 기약하는 기술연구소

주정업계 최초로 설립된 부설기술연구소(소장 남기두)는 93년 연구개발부에

서 출발하여 2002년 6월 기술연구소로 확대 발족되었으며, 그해 7월 과학기술  
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

지난 2001년도에는 주류업계 최초로 NIR-System(Near Infra-Red  
Spectroscopy : 근적외선 분광광도법)을 도입하여 기존 습식분석법을 기기분  
석법으로 대체함으로써 분석시간과 경비 및 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신속  
한 공정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최근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향기성분의  
분석과 동정연구를 위해 최신기법인 SPME(Solid Phase Micro Extraction :  
고체상 미세추출법)을 도입하여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등 활발히 움직이  
고 있다.

또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주류제조에 관한 연구 등을 바탕으로 3건을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1988년 일본발효공학회에 Simultaneous Saccharification  
and Alcohol Fermentation of Unheated Starch by Free, Immobilized  
and Coimmobilized Systems of Glucoamylase and Saccharomyces  
cerevisiae. 라는 연구논문을 필두로 2005년까지 약 36 편의 연구논문을 국내  
외 유명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매년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물과 출장복명서 등  
을 주요골자로 한 기술연구소보를 발행하고 있다.



가스크로미토램(Auto sampler)



← 기술연구소 분석실



##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산장학회

일산장학회는 1950년 6. 25동란 후부터 故 일산 이돈수 선생이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남모르게 개인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였던 것이 모체가 되어 1972년 6월 20일 故 일산 이돈수 선생 외 3인이 뜻을 모아 장학기금 10,300,000원으로 설립하였으며 1977년 3월 14일 제2대 이사장으로 일산실업(주)의 명예회장인 이상순 이사장이 취임하였다.

2005년도 까지 장학생, 효행상, 경료상, 불우이웃 등 수혜자는 총5,659명, 수혜금액은 46억6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일산장학회는 이와 같은 사회적 공로를 인정받아 1988년 10월 21일 우수 장학재단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2005년 경로우로금 수여식  
(일산장학회장 인사)

##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일산실업은 주정업계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급변하고 있는 국내의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료알코올의 생산판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확산에 앞장서고, 건전한 음주문화정착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일산실업 임직원들이 직접 홈페이지(www.ilsanal.com)를 구축하고 있으며, 서둘지만 알찬 내용을 담아서 조만간 김들이를 준비하고 있다. **▶ 주류1팀 손영권 차장**